

# THE 1975



THE 1975 빌보드 앨범차트 1위로 데뷔했다. 밴드의 인기가 급상승한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아담 한이 밴드 멤버를 모집하기 시작했고, 매튜 힐리는 원래 드러머였지만 밴드의 보컬이 새 밴드를 만들기 위해 떠나 힐리가 보컬을 맡게 되었고 조지 다니엘을 영입하며 지금의 The 1975가 되었다. 지역 클럽에서 주로 공연했는데, 지역 내에서 어느정도 인기를 얻자 메이저 레이블에서 찾아 왔다. 하지만 여러 유명 레이블에서 줄줄이 거절당했고, 이로 인해 멤버들은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유일하게 초창기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었던 레이블이 Polydor였고, 결국 계약까지 하게 된다. 2012년 8월 EP 'Facedown'으로 데뷔했다. EP 수록곡인 The City는 BBC Radio 1에서 BBC Introducing이라는 코너에서 소개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같은 해 11월 EP 'Sex'를 발표했는데, 수록곡인 'Sex' 역시 BBC Radio 1에서 소개되었다. 2013년 3월 EP 'Music for Cars'를 발매했다. 수록곡인 'Chocolate'이 메인스트림에서 성공을 거두며 영국 싱글 차트 19위에 올랐으며, 더불어 밴드의 인기도 급상승했다. 5월에는 EP 'IV'를 발표했으며, 수록곡인 새로운 버전의 'The City'가 영국 차트에 들었다. 데뷔 앨범 발매도 전에 EP를 먼저 발표한 것에 대해서 매티 힐리는 데뷔 앨범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전에 우리를 보여줘도 된다는 확신을 얻고 싶었다고 답했다.

The 1975는 데뷔 앨범 발표 전 뮤즈와 롤링 스톤즈 투어를 서포트하고, The Neighbourhood와 미국 투어를 같이 했다. Reading and Leeds Festivals에 참여하기도 했다. 앨범 발표 전 싱글 'Sex'는 7월 8일 BBC Radio 1에서 처음 공개되었고, 뮤직비디오는 7월 27일에 공개되었다. 데뷔 앨범은 2013년 9월 2일에 발표되어 영국 앨범 차트 1위로 데뷔했다. 앨범 발표 후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상반기에는 영국, 북미, 오세아니아 투어와 페스티벌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했다. 2014년 4월에는 코첼라 페스티벌에 데뷔했다. 2015년 6월 1일, 멤버들의 트위터 계정이 삭제되며 밴드가 해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다음날 계정이 모두 복구되고, 커버 사진이 밝은 분홍색으로 바뀌며 컴백을 알리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10월 8일 2집 제목이 'I Like It When You Sleep, for You Are So Beautiful yet So Unaware of It'이라고 발표했고, 리드 싱글 'Love Me'를 공개했다. 이어 12월 10일에는 'UGH', 1월 14일 'The Sound', 2월 15일 'Somebody Else'를 발매했다. 앨범은 2월 26일 발표된 후 영국 앨범 차트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16년 11월, 조지 다니엘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8'이라는 문구와 함께 새 앨범 작업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2017년 4월 3일에는 매티 힐리가 자신의 트위터에 'Music For Cars'라고 올리며 새 앨범을 예고했다. 그런데 'Music for cars'의 앨범커버에서는 1집에서 흰색, 2집에서 핑크색이었던 불빛이 꺼진다. 심지어 매티가 '한시대의 끝'이라는 글을 올려 파장이 일었다. The 1975가 다음 앨범을 마지막으로 해체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나왔지만, 매티는 The 1975의 마지막 앨범은 아니고 'The 1975', 'I Like It When You Sleep...'으로 이어졌던 삼부작의 끝 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6월 매티 힐리는 The 1975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Drive Like I Do 라는 이름으로 데뷔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제 앨범을 발표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7년 발매로 예정되어 있던 EP가 2018년 발매로 밀렸고, 대신 라이브 앨범 'DH00278'이 발매되었다. 2018년 1월 1일 멤버들과 The 1975 공식 SNS의 커버 사진이 모두 흰색으로 바뀌었다. 몇 곡의 제목은 이미 공개가 되기도 했다. 5월 1일부터 홈페이지에서는 6월 1일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그 전 앨범들과 함께 정규 1집 'The 1975'에서는 컨셉이 흑백이었다. 이 앨범에서 밴드의 초창기 성격이 잘 드러나는데, 신선한 스타일의 음악으로 자신들의 음악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어두침침하고 우울한 음악만을 할 거란 예상과는 다르게 대중적이고 발랄한 사운드의 트랙도 많다. BBC Live Lounge 에서 원디렉션의 'What makes you beautiful'을 커버했는데, 당시 The 1975의 느낌이 잘 드러난다. 토킵 헤즈, My Bloody Valentine, 마이클 잭슨 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미국의 영화 감독 존 휴즈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Robbers'는 토니 스콧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 각본의 영화 트루 로맨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정규 2집 'I Like It When You Sleep, for You Are So Beautiful Yet So Unaware of It'의 컨셉은 핑크였다. 이를 두고 거센 반발과 비판이 있었다. 1집과 마찬가지로 1번 트랙 'The 1975'가 앨범의 컨셉을 소개해주는데 1집에 비해 사운드가 더 밝고 풍성해졌다는 느낌을 준다. 매티 힐리는 싱글이자 2집 수록곡 'Love Me'는 80년대 신스팝과 일본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음악적 성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는 할 수 없는게, 그 전 앨범에서도 밝은 음악은 분명 있었고, 이번 앨범에도 어두운 음악은 있기 때문이다. 심도있는 가사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빌보드에서는 젊은 철학자의 탄생이라고 말하며 'The Sound'를 올해의 노래로 꼽기도 했다. 이런 가사 덕분에 인디 팬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 Zayn Malik



Zayn Malik 은 영국의 싱어 송라이터 이다. 2010년 영국의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인 The X Factor에 솔로로 참가하였고 그 계기로 5인조 보이 그룹인 원 디렉션으로 데뷔를 하였다.

영국의 브랜포드 서부 요셔크 지방에서 태어났지만 파키스탄 혼혈이라 이름이 영어권의 발음이 아니고 Z a i n 을 썼었지만 i 보다 y 가 좋다면 zayn malik 으로 원 디렉션 활동을 하였고,

솔로로 데뷔 후에는 ZAYN 만 사용하고 있다. 2010년 17살 되던해에 the x factor 에 참가한것을 계기로 원디렉션 활동을 5년 정도 하고 2015년 3월에 탈퇴를 하고 DJ 이자 프로듀서를 하는 naughty boy 와의 작업을 하며 사운드 클라우드나 각종 방면에 데모를 올리면 작업을 시작했고, 같은해 7월에 RCA 레코드와 레코딩 계약을 하며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나올 앨범의 이름이 'Mind of mine' 임을 알렸다.

2016년 1월 리드 싱글인 'Pillowtalk' 이 발매되고, 발매되자마자 UK 싱글 차트와 US 빌보드 HOT100 차트에서 1위로 시작하여 관심을 끌게된다. 영국 아티스트로서는 HOT100 차트 에 1위로 출발하는것은 처음이고, 최연소 1위 출발을 할수 있었으나 저스틴 비버가 1살 어린데 1위 출발한 적이 있어서 최연소 기록은 깨지 못했다.

2017년 3월 'still got time' 을 싱글로 내고,후에 sia가 피쳐링을 한 'dusk till dawn' 발매후 2018년 4월 'let me' 가 발매되어 끊이지 않는 활동을 하는 중이다.

# 선우정아



선우정아는 2006년 정규 1집 <Masstige>로 데뷔 이후, YG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YG 아티스트들의 앨범에 작사, 작곡, 편곡은 물론 프로듀서로 참여했고, 재즈 보컬리스트로서도 다양한 공연과 앨범 참여 활동을 펼쳤다. 2013년 정규 2집 앨범 <It's Okay, Dear>가 발매된 후 한국대중음악상 11회 시상식에서 올해의 음악인으로 선정되고 최우수 팝(음반) 부문을 수상하여 2관왕을 달성했다.

2NE1의 히트곡 <아파 (Slow)>의 작사, 작곡가로도 널리 알려졌고, GD & TOP, 이하이, 이선희, 서인영, 토이, 에피톤 프로젝트, 산이, MC몽 등 다양한 가수들의 앨범에 참여하고 교류하면서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객원보컬, 프로듀서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몇 편의 영화음악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아이유를 비롯하여 많은 뮤지션들이 좋아하는 뮤지션으로 뽑고 있다.

본인은 음악만 하고도 살 수 있을 정도로만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다고 한다.